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자기부터 알아야 우주 만물만생과 통해

외국인에 불법전하고 싶어요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스님의 중생에 대한 한량없는 자비심에 감사드립니다. 타종교 외국인에게 불법을 전하려 하는데 독실한 신자입니다.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체법이 꿈같고 환상인줄 알지만요.

답 예전에 가톨릭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심이 나더랍니다. 왜 의심이 났느냐? 내가 잘못해 놓고 저 신부님한테 떠들썩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 하는 의심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을 안위시키고 그랬을 뿐이지 그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판사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갈 수도 없고 행복을 갖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요. 이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 광대 무변하고 묘하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고 바른 생각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대장부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거지 맨날 거지로 그냥 이 나무가 저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에너지 조금만 주세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다 죽게 됐으니 조금만 주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만. 나 살게끔 주세요. 이러구 빈단 말입니다. 지금 기복으로 믿는 분들 다 안 그렇습니까? '그저 욕심도 안 부리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빼놓고 타에서 구하니까 저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줄까? 자기 뿌리만이 에너지가 가능하죠. 그러나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너의 뿌리만이 너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으니 너의 뿌리를 믿고 의지하라고 알려주세요.

실적 높이려는 욕심 있는데...

문 큰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실천하려 노력하는 부신의 청년입니다. 큰스님 법문중에 무심이 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생각이나 마음내지 않으면 중생이라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영업적인 성격이 강한데 항상 관하면서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어느새 그만려서 괴로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무

심법문이 생각이 나서 되는 것도 거기, 안되는 것도 거기. 하면서 잘 하려는 마음까지 다 놓고 할 일만 하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지내니까 회안하게 잘 풀리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업무가 무계획하고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객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현재 어려움

**“남을 나처럼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사랑”**

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도 놓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요.(그러면 무심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가르침 주시면 반드시 실천하여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하는 일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놓으면 다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 믿고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져올 때는 네가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생겼지 않느냐. 그리고 둘째는 너로 인해서 생긴거니까 주인공만이 해결을 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구 거기 아예 그냥. 믿으면 그렇게 여러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걱정도 되지 않아요. 믿으면. 그런데 못 믿으니까 걱정이 되고 뭐 다 과신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이런 거죠. 정말 믿는다면 과신 아니라 생명이 지금 끊어진 대도 하나도 걱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무심으로 맡긴다면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맡겼다면 더 계획이 서고 적극적이 될 텐데, 사람이 심이 붙어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잘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까지도 놓아야 합니다. 걱정이 된다는 건 벌써 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가서 벌어서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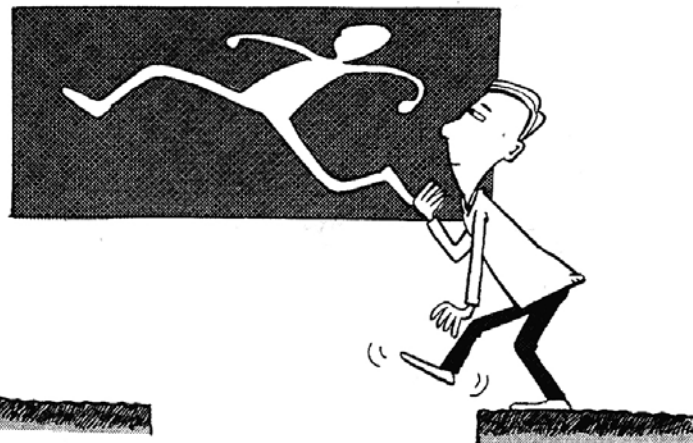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뿌리만이 자기 이끌수 있으니
주처인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면
자유스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리게 된 놈도 그 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 놈이고 믿는 놈도 그 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 놈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일치해서 모든 것을 규정적으로 믿고, 죽든 살든 거기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된다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벗어나서 다 놓을 수만 있다면, 첫째는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둘째는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셋째는 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은 아래 위를 다 통일되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게끔 되니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문 신행 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것 같고요.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 아닌 숙제를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을 제가 다스리지않고 그저 받기만하는 또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식주 문제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의로움, 고독, 사람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부모와 형제간의 사랑이 아닌 남남간의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어떤 것이 진실한 진정한 사랑인지요.

답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참, 누구도 믿을 게 없다고 그러죠. 자식이고 누구고 믿을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들으면 섭섭할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자식도 일 년 이래, 삼 년만 드러누웠어 봐요. 어떻게 되냐? 또 부모가 이제 삼 년만 드러누웠어 봐. 어떻게 돼나.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다 소용이 없다가 소리예요. 물질적인 것은, 일체 만물이 다 물질적인 것은 다 변

질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된다. 는 얘기에요.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가 속아? 아니 여자들은 천신 만신 신중하고 뭐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벌어다가 주고 하구선 배신을 당하구. 그대 내뺏기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벌써 떠났으면 배신 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해요?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 차례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들어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연결이 되고 이리하면서 살지. 한 번이라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거예요. 아마.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변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생각 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값싼 눈물을 흘려서도 아니되지 마는 값싸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자비로운 마음,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바로 나처럼만 생각한다면, 싸울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학적이 잘 안됩니다

문 이 세상엔 종교 없이도 별 다른 고통없이 잘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볼때는 종교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법을 자연이 깨친 사람들로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대행스님이 말하는 "방학적"과 동일하므로 사실 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학적이라 관하라 하지만 사실 유전적으로나 큰 업이 없는 분들은 잘합니다. 이것은 꼭 불경에 방학적이라고 가르쳐져서도 아닌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알고 따른 결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이 많거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거나 차별받고 자라거나 여러 요인으로 그릇의 폭이 작은 사람은 불안해서 사실 놓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런 분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부디피아 티셔츠

다들 21C 불국도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연꽃 지구촌

다들 21C 불국도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불교 전통차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차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금산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황제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중심사 대웅전

현상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기도포 100장, 다포 200장
크기: 84cm x 39cm
가격: ₩1,600

현상공덕향

현상공덕향은 의형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연꽃문양 작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제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의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가격: ₩8,000(37개) ₩21,000

재조원: 金城通商
판매원: 몰·부디피아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7,000

몰·부디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 전 화 : 02-732-1522/737-8881
- 팩 스 : 02-737-0697
- 인터넷 : http://mall.buddhapia.co.kr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